

Bazaar

Harper's

www.imagazinekorea.com

값 6,000원

AFTER SUNCARE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뮤즈
윤혜진의 뷰티 시크릿
킨포크 뷰티
마스크팩 열전

유준상의 어느 멋진 날
천우희의 새로운 여정
코리아 셰프의 음식 예술
폰다지오네 프라다의 새로운 공간
베니스 비엔날레 현장에 가다

Stella McCartney In Seoul

SUMMER GETAWAY

42인의 패션 인사이드가 공개하는 트래블 노트와
<바자>의 심미안으로 꿈은 여행지들!

G-DRAGON MEETS ART

Garden Special

크리스토퍼 베일리,
크리스찬 디올, 샘 맥나이트,
치토세 아베가 꿈꾸는
정원과 스타일



PLUS; 앰버 앤더슨, 파비언 바론, 가브리엘 쿠리, 이윤택, 이자람, 남화연, 김아영, 안정주, 전소정



VENICE IS THE NEW ART



아이작 줄리앙의 자본론 낭독 퍼포먼스는 비엔날레 기간 내내 하루에 20분씩 진행된다

브루스 노만의 네온 작품과 묘한 대치를 이루는 아델 압세메세의 작품

만약 예술이 아니었다면 베니스는 어떤 모습일까? 아드리아해 중세 도시인 베니스에서는 곤돌라를 만들고 수리하는 공장과 레스토랑 이외에는 자생적인 산업을 찾아볼 수 없다. 선대의 문화적 야심과 안목에 빛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 운하와 과거 영광에 고립된 베니스를 현재와 미래로 이끌어내는 건 바로 1백20년 된 베니스 비엔날레다. 예술을 길잡이 삼아 베니스 곳곳을 훑었다.



이탈리아 국가관 앞의 자르디니 공원의 메인 거리다



베이징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조각품을 만들었던 쉬빙은 이민 노동자들을 기리는 용 조형물을 선보였다



문타 델라 도가나를 비롯한 베니스의 전경



아르세날레 중심에 피노 파스칼리스의 대포가 있다



예술의 정치 의식을 묻는 한스 하케의 작품



다양한 기계의 소리를 모아둔 제레미 델러의 주크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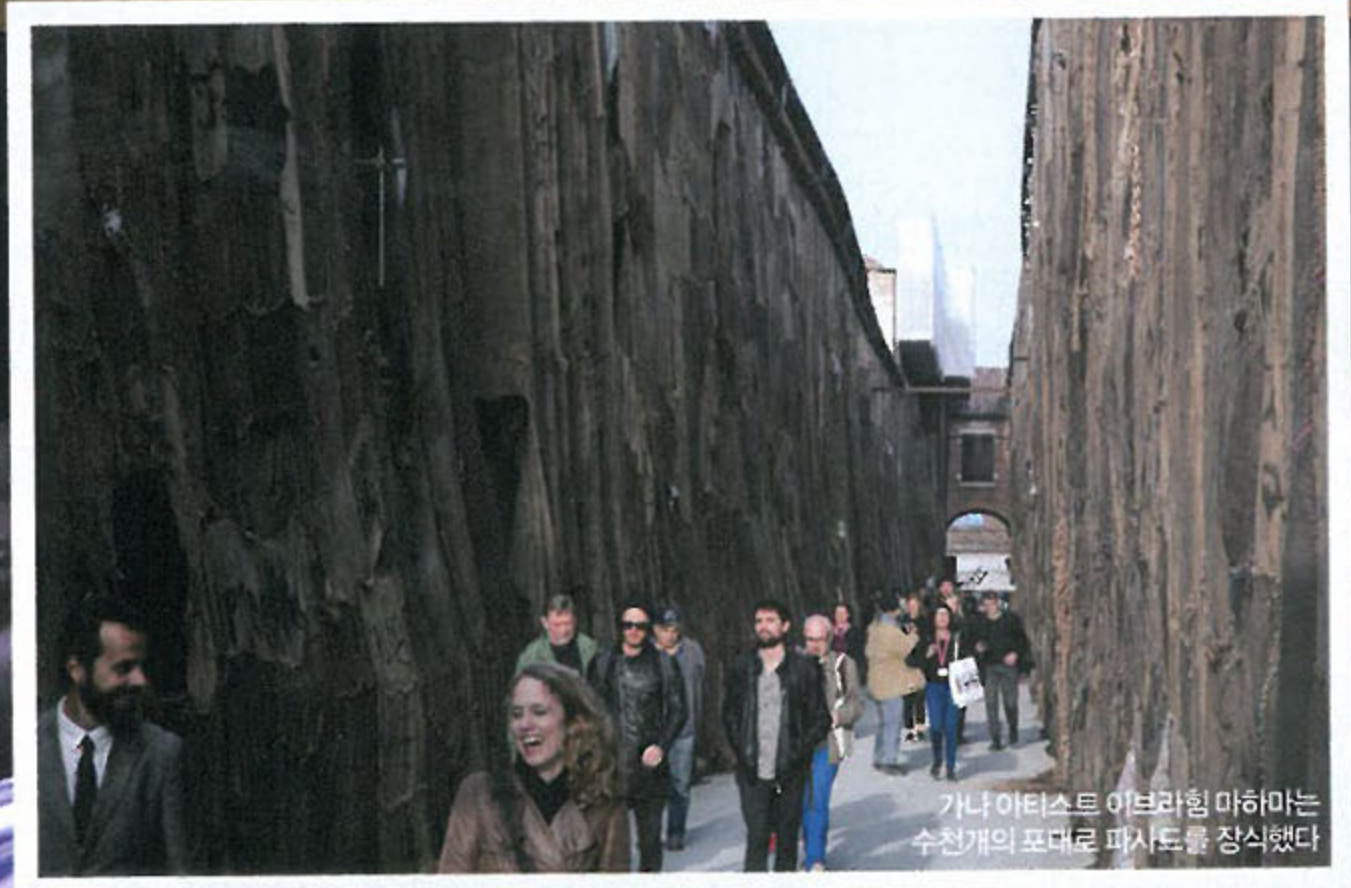


Venice

크리스티앙 볼탕스키가 선사한 고요한 순간



아르세날레 전반의 분위기를 지배한 모니카 롱비치니의 사슬 무더기



가나 아티스트 이브라힘 마하마는 수천개의 포대로 피사드를 장식했다

카타리나 그로스가 만든 의도적 낙원



푸드 퍼포먼스로도 유명한 리크릿 티라바니자는 직접 만든 벽돌을 실제 관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올해 베니스 가세요?” 이맘때가 되면 미술계 혹은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 “가보려고요. 비엔날레가 죽었으니, 그사체도 확인할 겸.” 이런 흥미로운 대답도 있었으나, 정작 당사자는 베니스에서 만날 수 없었다. 대신, <바자> 혹은 나와 교류가 있는 지인들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큐레이터로, 갤러리스트로, 홍보 담당자로 혹은 작가로 활동하는 이들은 곳곳에서 출몰함으로써 비엔날레가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초대형 미술 이벤트”라는 데 동의를 표했다. 영향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설상가상 ‘물의 도시’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비엔날레가 죽었다는 가설은 힘을 얻고 있지만, 미술계의 현 담론과 이슈, 방향을 모두 끌어 담은 도록을 보지 않고 지나칠 순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베니스에 오는 사람들은 (아트 바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채롭다. 웬만한 미술 관계자는 물론이고 그들을 거느린 카니에 웨스트 같은 셀러브리티들, 고작 몇 시간 전시 보러 오면서 항구에 요트를 정박하는 데 5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하는 부자부터 수십 년 전 존 발데사리가 그랬듯 노숙이라도 감행할 판인 가난한 미술학도까지, 어쩌면 모두에게 베니스 비엔날레는 공평하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전시 영역을 공항으로까지 확대했다. 뉴질랜드 국가관의 작가 사이먼 데니가 마르코 폴로 공항의 도착 게이트를 다빈치 풍으로 만든 ‘Secret Power’는 이 도시가 미술계의 만국박람회임을 천명한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 택시비를 나눠 낼 요량으로 피터 도이그나 크리스 오펔리 같은 유명 작가와 수상작시를 함께 타길 꿈꾼 나 같은 자들까지도, 분명 비엔날레의 관객이다.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올해로 56회를 맞이한 베니스 비엔날레의 시작은 지난 1895년, 이탈리아 국왕의 25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다. ‘예술과 국가, 장엄함의 빛나는 이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그는 이탈리아발(發) 르네상스의 부활을 꿈꾸며 백년해로를 다짐했을 것이다. 수십 년 전, 비엔날레 시즌에 맞춰 베니스에 온 미술가들이 집회를 열었을지언정 한 번도 동시대 주류 미술계의 화려한 무대가 아닌 적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그가 이번 비엔날레를 봤다면 뭐라고 할까? 별명마저도 ‘La Serenissima(전하라는 뜻)’일 정도로 귀족적인 도시 베니스에서 1백40여 명에 이르는 다국적 아티스트들이 단체로 자본론을 합창하며 봉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말이다.

올해의 디렉터가 오쿠이 엔위저라는 소식은 비엔날레의 경향을 미리 예견했다. 나이지리아의 ‘후기 식민지 시대 평범한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예술로 시스템에 맞서고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켰다. 제3세계의 미술을 세상에 알려오다 광주비엔날레 등의 디렉터를 거쳐 아프리카인으로서는 최초로, 큐레이터로서 최고의 영예라는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이 된 입지전적 인물. “예술가들이 진실을 말하는 힘을 잃었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던 그는 걱정했다는 듯 노동, 환경, 여성, 인종, 전쟁, 수입불평등, 종교적 자유, 대량학살 문제 등 자본주의가 유발한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상처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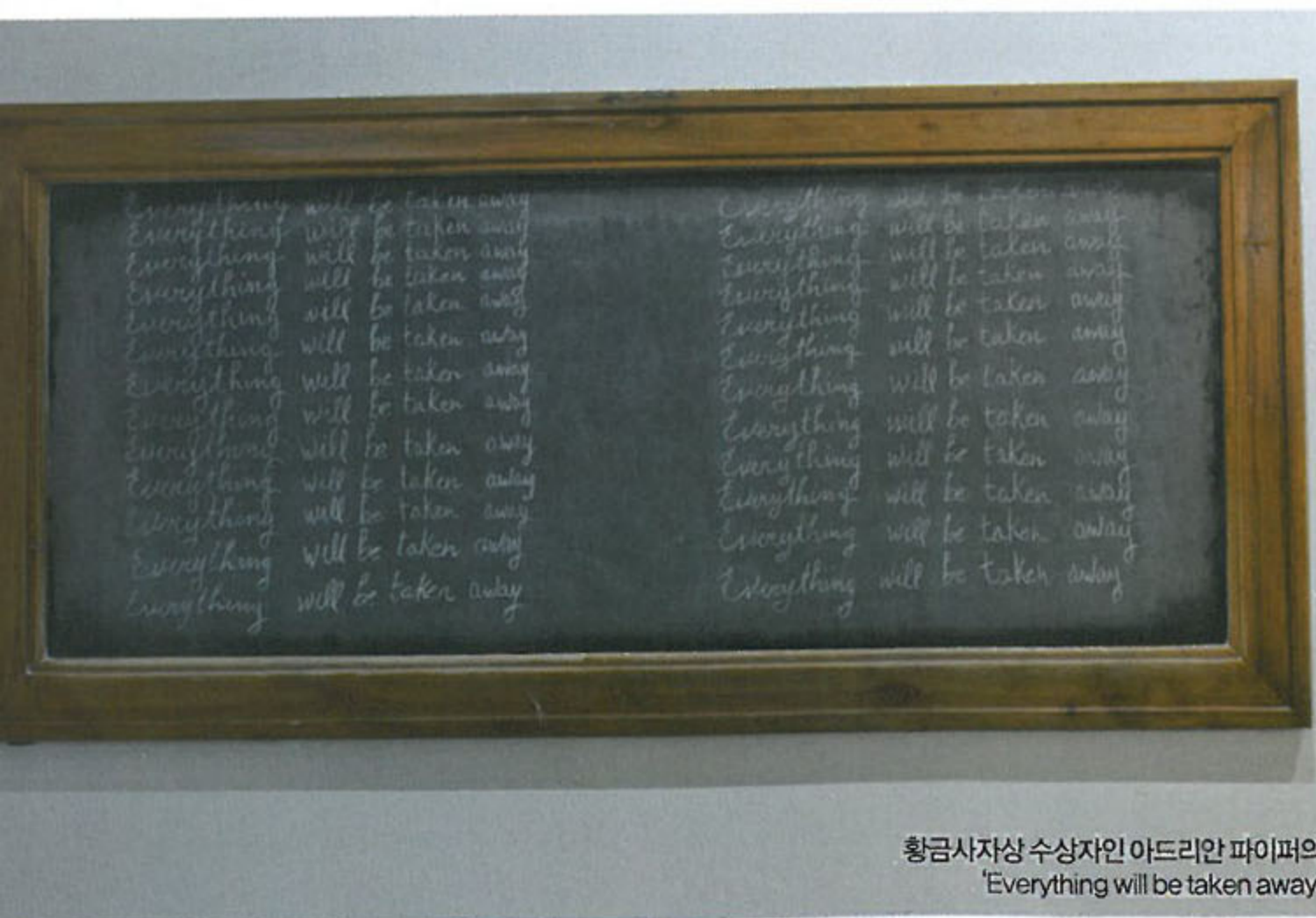
한 불편한 진실들을 죄다 쏟아놓는다. 영화감독인 아이작 줄리안이 자르디니의 아레나에서 7개월 내내 하루에 20분씩 자본론을 읽는 퍼포먼스로 그 선두에 섰는데, 이는 단연 엔위저의 야심작이다. 물론 루부탱 신은 여자들이 개도국 방직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담은 비디오를 배경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맘에 안 들었던 <가디언> 같은 언론들은 “줄리안이 롤스로이스 관에서는 럭셔리한 얼음동굴 조각을 선보이고 있다”며 비엔날레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엔위저가 생 로랑을 즐겨 신는다는 것도 꽤 쓸쓸한 비판거리가 될 것이다.

엔위저가 새빌로의 킬고어에서 맞춘 수트만 입는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온 도시가 비엔날레에 ‘맞춤’되어 있다는 점과 수상택시의 비용이 편도 60 유로에 이른다는 점이었다. 수상버스인 바포레토를 타기도 했지만, 프리 오픈 기간의 바포레토는 서울 출근시간의 2호선과 진배없었다. 결국 아르세날레 전시장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이른 아침의 베니스는 관광지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패션 매장 앞에서 짝퉁 가방을 파는 장사치들도 없었고, 장난감을 두칼레 궁전 높이로 던지고 받는 총각들도 없었다. 다만 부지런한 관광객들이 있을 뿐이었다. 한국의 패키지 투어 관광객은 물론 각 대륙에서 온 예술애호가들까지 점령한 탓에 길은 꽤 험준했다. 아르세날레 근처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것도 아트 투어일까? 하긴, 리알토 다리도 미켈란젤로를 제치고 낙점된 안토리오 다 폰테가 만든 작품이다. 거리엔 또 얼마나 많은 행위예술가들이 있나? 돌맹이를 주워 담고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는 예술가, “내 돈을 받아 달라”며 10 센트짜리 동전을 행인들에게 쥐어주던 예술가, 석탄을 갈아서 가루를 만든 후 혀로 핇던 예술가,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두고 꼼짝없이 누워 있던 예술가까지.

거리가 베니스의 장외 무대라면 비엔날레의 본격 무대는 두 개의 전시장에 구성되어 있다. 국가관들과 메인 전시관이 함께한 자르디니 공원, 또 하나는 중세 조선소이자 병기고였던 아르세날레 전시관이다. 자르디니의 전시관은 입구에 오스카 물리로의 검은 깃발을 주렁주렁 걸어두어 애도의 축제 분위기를 냈고, 1킬로미터에 이르는 아르세날레의 긴 통로는 가나 아티스트 이브라힘 마하마가 수천 개의 코코넛 포대를 기워 만든 거대한 파사드로 장식하며 고된 노동 현장을 상징했다. 전시장은 살벌한 작품부터 서정적인 작품까지, 다른 리듬과 박자를 만들어내며 변주하고 있다. 오쿠이 엔위저의 의도가 호평일색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추진력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는 직설화법으로 보는 이의 뺨을 후려치기도 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유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부드러운 회유책을 쓰기도 한다.

실제 시에라 리온의 내전을 겪으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아부 바카르 만사라이의 정교한 무기 그림이 아니더라도, 아르세날레 내부의 공기는 터질 듯이 팽팽했다. 알제리 아티스트인 아델 압세메세드는 칼날을 내리 꽂아 수련으로 꽃피웠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멜빈 에드워즈는 무쇠를 이용해 장비, 수갑, 해머 손잡이 등을 페티시적으로 표현했으며, 모니카 봉비치니는 사슬톱을 무더기로 모아 천장에 매달아놓았고, 피노 파스칼리스가 폐기된 철로 만든 거대한 대포총은 아예 대놓고 선언한다. 당신이나 우리나라 모두 전쟁통에 있노라고. 바로 그 영화감독 스티브 매켄의 작업 ‘Ashes’는 전시장 한편에 노동자들의 묘비를 세웠고, 얼마 전 별세한 하룬 파루키는 지금 세상의 모든 노동에 대해 발언하며, 미카 로텐버그는 조개를 채취해 진주를 캐내는 작업을 보여주며 실제 진주를 봉지째 갖다 두었다. 노동이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임홍순의 ‘위로공단’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이번 비엔날레는 예술이 오늘을 발언하는 살아 있는 언어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에 나온 작가들은 직접 화법을 구사하고, 그래서인지 작품들은 저마다 거친 숨소리를 낸다.” <아트 뉴스>의 어느 평론가는 이렇게 썼다. 이런 와중에 숨을 가다듬게 하는 몇몇 작품들도 있었다. 작업실 혹은 방처럼 꾸며진 데서 하릴없이 비행기만 날리는 에르네스토 발레스테로스의 ‘잉여’ 퍼포먼스나 릴리 레노 듀위가 벌거벗고 도서관에서 춤추고 돌아다니는 비디오 작업, 크리스티앙 볼탕스키가 들뜬에 설치한 모빌에서 나는 움직임과 소리를 녹화한 작업, 그리고 아타만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명사진으로 만든 구름 같은 조형물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었다. 비록 조지 바살리스는 발가벗은 남자 그림을 거꾸로 달아 놓아 긴장감을 연출하긴 했지만, 크리스 오펔리가 그린



황금사자상 수상자인 아드리안 파이피의 'Everything will be taken away'



벨기에관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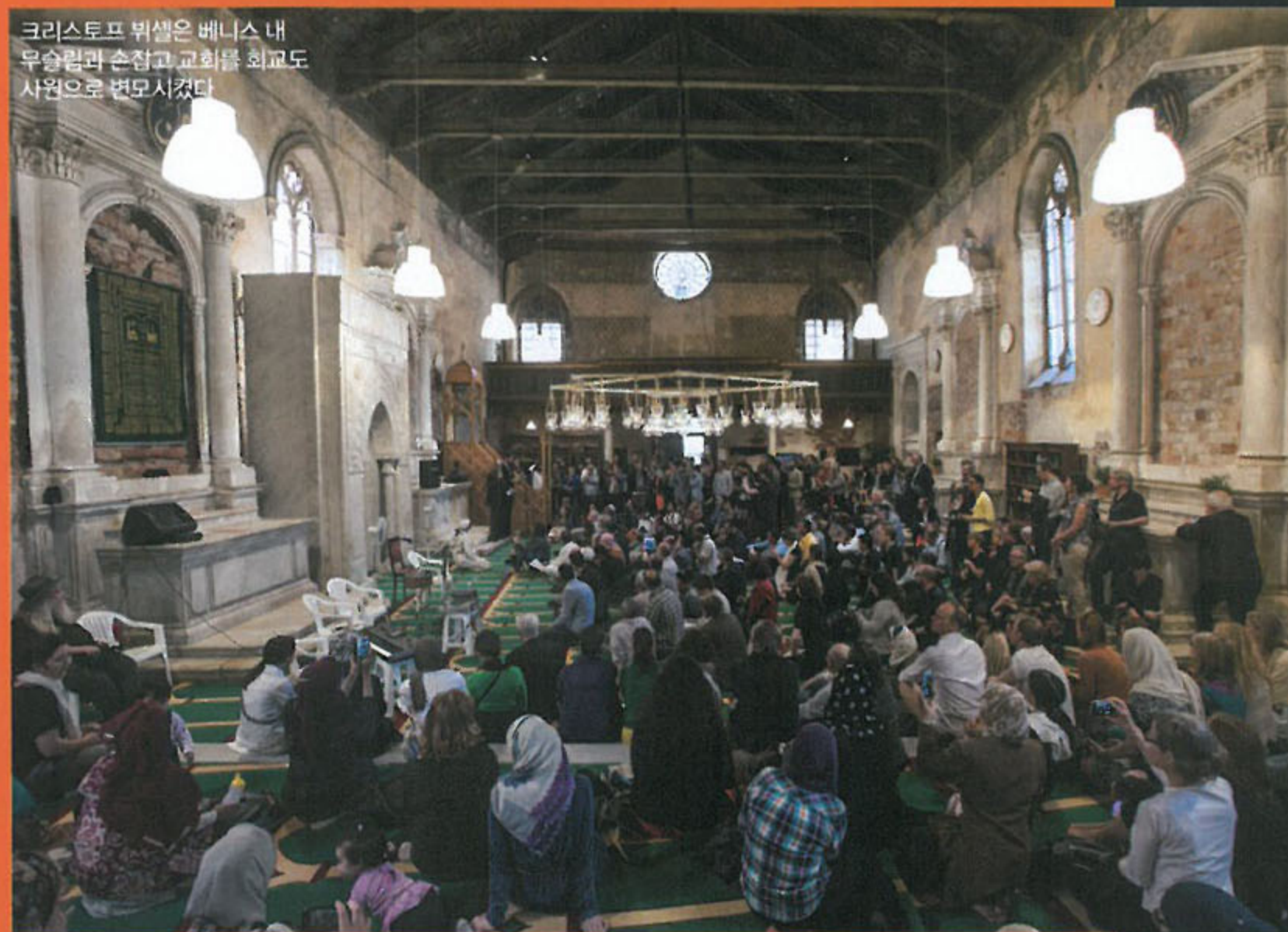
《Wrong Way Time》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선보인 호주관



덴마크관의 고요 속에서 도발적인 작품을 선보인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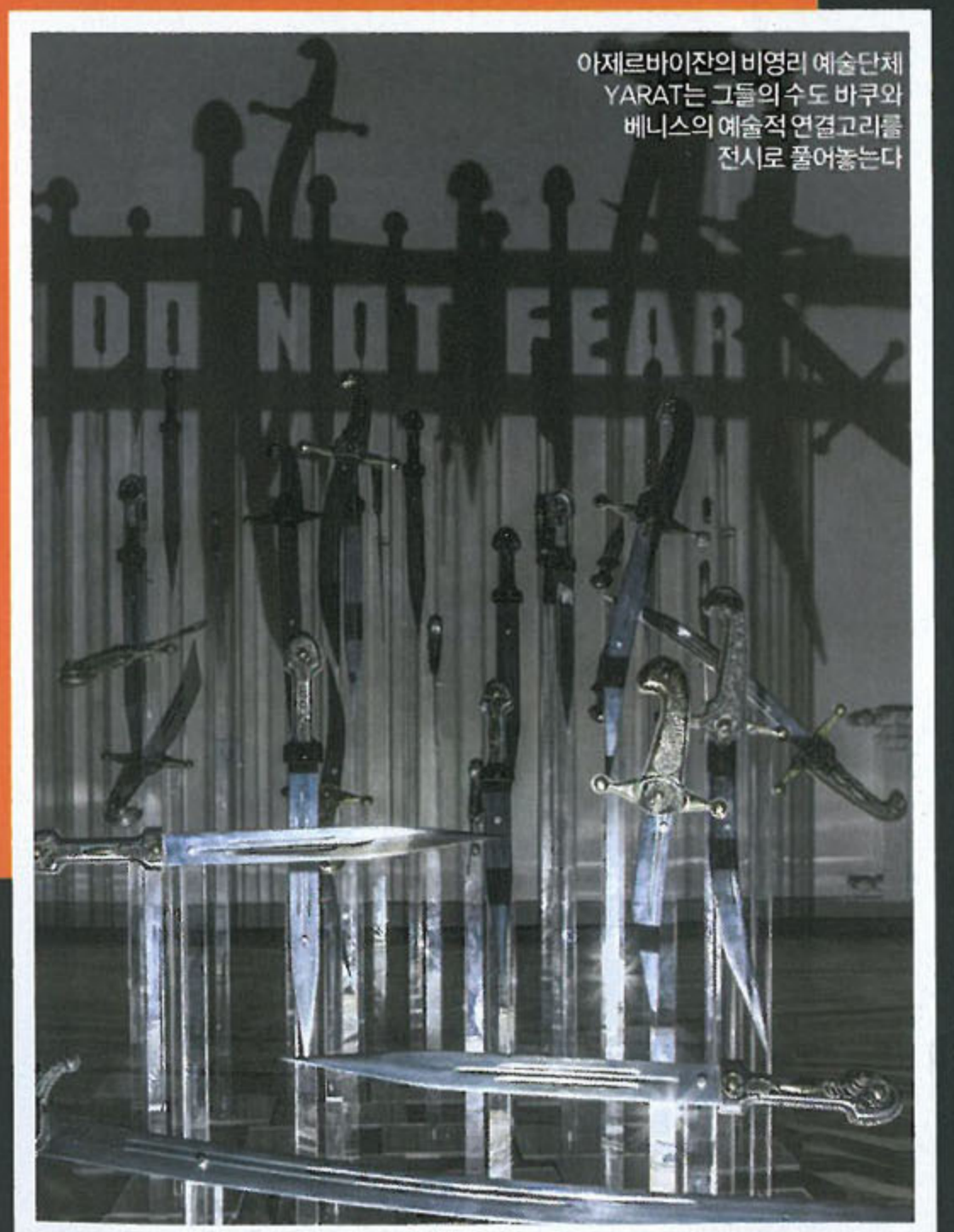
사라루카스의 성담론은 영국관을 후끈 달구었다



크리스토프 뤼셀은 베니스 내 무슬림과 손잡고 교회를 회교도 사원으로 변모시켰다

러시아의 여성 개념미술가 이리나 나코바의 존재를 알게 한 작품

베니스 비엔날레의 국가관은 이들이 긴장감을 잃지 않고 장수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



아제르바이잔의 비영리 예술단체 YARAT는 그들의 수도 바쿠와 베니스의 예술적 연결고리를 전시로 풀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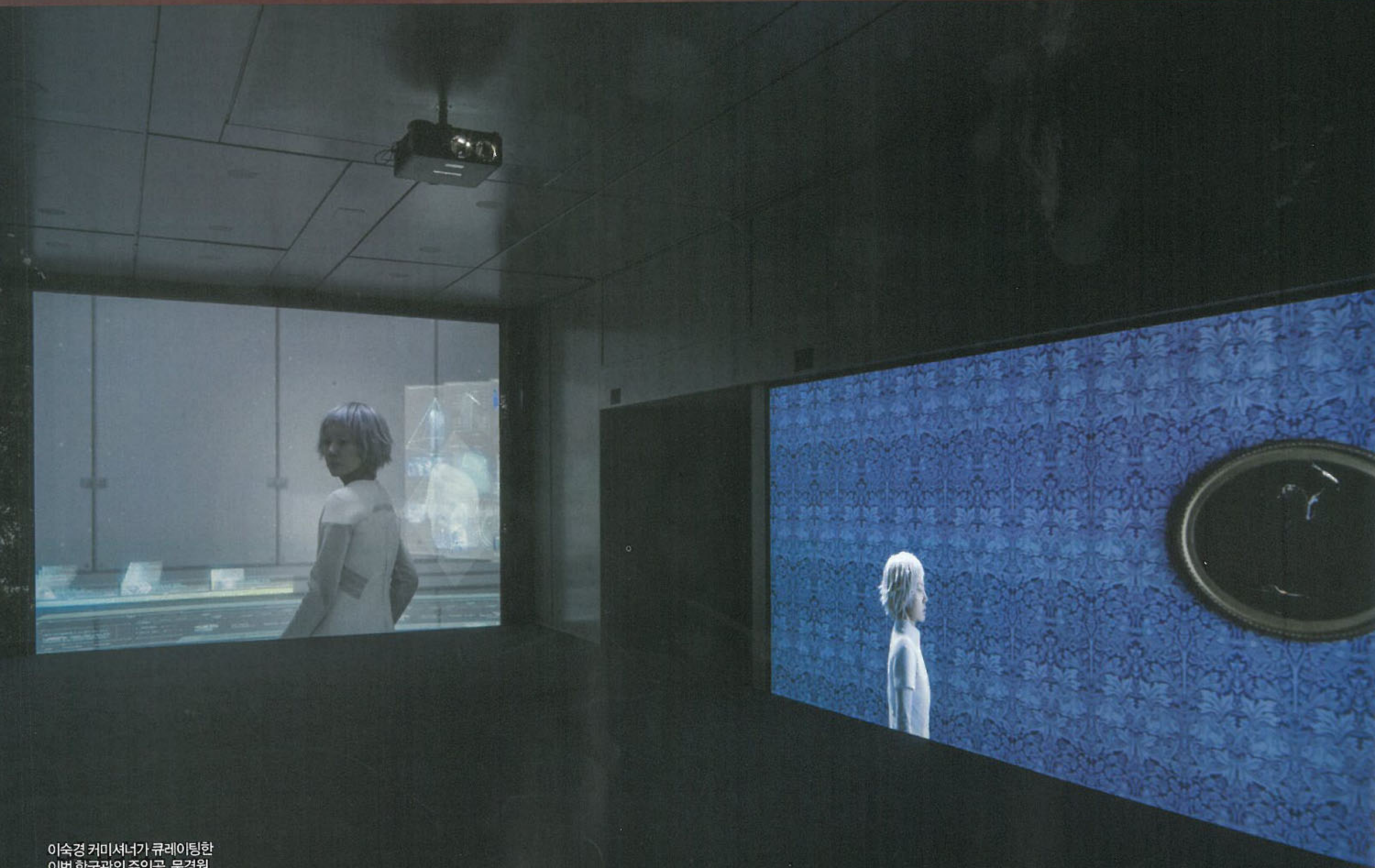
사진/ La Biennale di Venezia



뉴질랜드관은 전시 영역을 마르코 폴로 공항으로 확대했다



치하루 시오타는 실과 열식을 이용해
일본관을 붉은 안개로 장식했다



이숙경 커미셔너가 큐레이팅한
이번 한국관의 주인공,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죽지법과 비행술'

몽환적 작품들이 자꾸만 기억나는 건 케리 제임스 마샬의 작품이나 마를린 두마의 해골 그림처럼, 이번 비엔날레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화작품이었기 때문이라 하기엔 매우 고요한 감동을 선사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스타일을 '세계의 모든 미래'라는 테마에 충실하게 맞추되 작가 본인의 세계가 두드러진 작품들이 좋았다. 이를테면 현실 참여적이면서도 미학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 제레미 텔리의 작품 말이다. 그가 준비한 노동요의 역사에 관한 텍스트, 천장에 달린 위트 있는 배너('Hello, Today you have day off'), 다양한 기계들의 소리를 녹음한 주크박스 같은 짜릿한 불협화음을 선사하는데, 노동에 대한 21세기적 접근이라 생각했다. L.A.에서 활동하는 찰스 게인스는 말콤 X나 넬슨 만델라 같은 위인들의 연설과 전통 음악을 합친 음악을 선보이고, 제이슨 모란은 과거 뉴욕의 뮤직홀을 재현하며 음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베테랑 아티스트 한스 하케는 방문객들에게 즉석에서 설문조사를 받았다. 세계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아부다비의 건물 계획 조건 같은 것에 견해를 물음으로써 관객들이 잠깐이나마 정치 결정자가 되도록 한다. "만약 예술계에 존재하는 중요한 의문들에 그런 합의가 있다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정치적 활동에 무관심한 걸까?" 1993년 독일관 작가로 전시장 바닥을 깨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그는 엔위저의 의도에 이렇게 따지 거는 듯하다. 아드리안 파이퍼도 참여 작업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I will always do what I say I am going to do'라는 문구에 서명(혹은 선언)하게 하고, 그의 연구 아카이브에서 1백 년 동안 보관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철판에는 'Everything will be taken away'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써두었는데, 두 문장 사이의 간극이 이상한 상실감을 야기한다. 아드리안 파이퍼는 결국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객들이 고개를 가웃거렸을지, 끄덕였을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전시장을 빠져나와 자르디니의 숲을 걸었다. 메인 길에 줄지어 서 있는 조각상들이 원래 있던 게 아니라 RAQS 미디어 컬렉티브(Media Collective)가 만들고 조지 오웰이 제국주의에 대해 쓴 수필 <코끼리를 쏘다>의 문구를 인용한 작품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머리가 없거나 연단이 없는 조각상의 불완전성을 알아봤어야 했다. 핑계 같겠지만 자르디니에 들어서면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미니 크렘린 궁전(러시아관), 북유럽 스타일의 유리 건물(노르딕관), 미니 바르세유 궁(프랑스관), 고풍스러운 저택(영국관) 등 건축 양



식의 집합체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흥분된다. 특히 이날처럼 날씨가 화창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지금 베니스에 있다는 자각이 더욱 강해진다. 이곳이 숲 한 비엔날레와 다른 점은 바로 국가관을 운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라 손튼이 쓴 <결작의 뒷모습>에는 이렇게 써 있다. "국가관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내셔널리즘은 베니스 비엔날레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다."

각 국가들은 매회 비엔날레 국가관을 대표할 작가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전폭 지원하며, 언론들의 힘찬 응원을 받는다. 게다가 89개의 참가국 중 '주요'라 할 만한 국가들만이 자르디니에 등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다. 결과적으로 올해의 국가관 황금사자상은 아르메니아관에 돌아갔다. 이들은 찾기도 쉽지 않은 산라차로(San Lazzaro)의 작은 섬에 있는 수도원에서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1백주년 기념탑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마도 황금사자상을 내심 기대했던 국가관들은 여럿 있을 것이다.

악명 높은 스타, 사라 루카스를 내세운 영국관의 실망도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영국관을 함께 둘러본 지인들은 "남부끄럽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 '남부끄러움'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감정과 성 담론이 바로 사라 루카스의 의도

다. 남근인지 가운데 손가락인지 모르겠는 불손한 작품들은 기본이고, 담배 피우는 똥구멍, 여성의 성기까지 늘어놓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헛웃음과 호기심을 동시에 일게 한다. 이를테면 "왜 이런 작품 아래에 스팸을 깔아둔 걸까요?" 같은 의미 없지만 의미 있는 질문들. 나중에 한 지인이 '스팸'은 정자를 의미하는 속어라고 말해주었다. 사라 루카스가 트레이시 에민, 데미언 허스트, 길버트 & 조지, 채프먼 형제 등이 유지해온 영국 특유의 풍자와 유머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프랑스관은 자연주의로 회귀하고 있었다.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갖다 놓았고, 관객들은 전시장에 드러누워 나무를 감상했다. 특이한 건 수액이 빨리 올라가는 소리가 꽤 청량하고 아름답다는 거다. 기대하지 않았던 러시아관에서는 여성 미술가 이리나 나코바의 존재를 알게 됐다. 커다란 조종사의 검은 헬멧이 방 하나를 채우고 있는데, 작가는 그의 눈에 자신의 눈을 투영시킨다. 누군가의 눈 속에 있는 나는 이렇듯 불안하다. 국가관으로서 가장 먼저 자르디니에 입성한 벨기에관은 고수의 내공을 뽐냈고, 스페인관은 달리에 대한 작품으로 후손의 예를 다했다.

온 건물을 타이어로 도배한 이스라엘관에 들어가기 전, 미국관에 가봐야 했다. 명망 높은 작가 조안 조나스의 전시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리츠 아트페어 때문에 관계자들이 꽤 빠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니스 구겐하임에서 대대적인 기념 파티를 열기도 했다. 길게 늘어선 줄을 인내하면 환경에 대한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었다. 조안 조나스는 필름 이중노출 기법을 활





전 세계 미술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은 <단색화>전의 설치전경

용, 아이들의 모습을 물의 요정 혹은 나무 정령처럼 몽환적으로 담고 본인이 직접 가면을 쓴 채 출연하는데, 어쩐지 갈 곳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들이 애잔하다. 케이트 블란쳇이 베니스까지 온 이유는 바로 호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 데다 그녀가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작가 피오나 홀은 빵으로 만든 총, 지폐로 엮은 새 등지, 다랑어캔 뚜껑으로 만든 물고기 등, 수많은 것들을 모아 미래주의적 자연사 박물관을 탄생시켰고 호평 받으며 기대에 부응했다. 하지만 아마 국가관에도 '관객상'이 있었다면 그건 일본관의 차지였을 것이다. 중견 작가 치하루 시오타는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 받은 수천 개의 열쇠로 온 방을 장식했고, 가운데 낡은 조각배를 설치해두었다. 사실 이 컨셉트는 어쩔 수 없이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아티스트 진신의 방식과 겹쳐지지만, 붉은 실이 직조한 거대한 그물망과 이에 매달려 있는 열쇠라는 상징은 충분히 명상적으로 아름다우며 게다가 포토제닉하기까지 하다.

자르디니의 국가관들은 서로 매우 정교하게 다른 스타일로 믹스 매치의 미덕을 발휘한다. 온통 빨간색에 뜨거운 감성을 담은 일본관 바로 앞, 한국관은 건물도, 작품도 차갑다. 올해의 주인공 전주호, 문경원은 전작인 '미지로부터의 소식'에서 자가 영감 받은 듯한 '축지법과 비행술'을 선보였다. 이번에도 물에 잠긴 세상에서 살아 남은 단 한 명의 인류로 임수정이 출연해 미래 시대에서 러닝머신을 뛰기도 하고, 베니스의 상인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작가들은 비디오에서 소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동양미술, 도교사상, 뇌과학, 종교 등의 장르를 심어두었는데, 아마도 관객들은 물에 잠긴 세상이라는 설정에서 이미 이 도시를 떠올렸을 것이다. 2백 년 후면 베니스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거라는 확설은 이미 공공연한 진실이니까. 건물을 되돌아봤다. 벽면의 LED 화면에 클로즈업된 임수정의 얼굴이 떴다. 관계자들은 올해 한국관이 건물 파사드를 충분히 활용했다고 칭찬했다. 사실 1995년 자르디니의 국가관 중 가장 나중에 생긴 한국관의 위치와 상태가 최고는 아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93년 백남준이 독일관에서(한국관이 아닌) 황금사자상을 받은 후 한국 현대미술에 기여하고 싶다고 나서지 않았더라면 더 늦어졌을지도 모른다.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전주호, 문경원 작가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는 듯 보였다.

'물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골목의 도시'이기도 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의 시간

을 즐겁게 해준 건 우연의 순간들이었다. 시내 골목을 건다가 우연히 발견한 전시, 우연히 알게 된 작가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나라의 존재들. 어떤 이유로든 자르디니에 입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아르세날레 전시관이나 근처, 시내 곳곳의 궁, 교회, 창고, 저택 등을 임대해서 전시를 연다. 하지만 자르디니에 번듯한 국가관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예술이 못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자르디니에서도 카페 가건물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편집증이 동원된 조각 골동품 가게처럼 꾸며진 캐나다관이라는 것과 BGL 멤버(BGL Member)라는 젊은 아티스트 그룹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행복해했었다. 아프리카에 있는지, 발트 3국에 속해 있는지 늘 헛갈리는 라트비아관은 통나무를 이용한 전통 건축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선사했다. 젊은 아티스트 두 명은 폐목을 이용해 옛 소련 시대의 창고를 재현함으로써 인간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기 전, 스스로 만들고, 발명하고, 꾸러가던 삶을 회고하게 한다. 아날로그 놀이기구 같은 탈것에 직접 관람객을 태우고 의자를 빙빙 돌아가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 속도를 느끼도록 한 작가의 의도는 실로 귀여웠다.

아르세날레 입구를 서성거리다가 우연히 홍콩 M+의 수석 큐레이터 정도련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아티스트 창 킨와가 비주얼과 텍스트만으로 구성한 미니멀한 작품은 서정적이었다. 디지털적으로 보이는 작가가 실은 매우 아날로그적으로 수도승처럼 작업한다는 사실을 정도련에게 듣고 나자 평범한 건물에 숨은 홍콩관을 지나치지 않았던 게 다행이다 싶었다. 정도련은 도록과 예코 백까지 챙겨주며 살뜰한 굿바이 인사를 건넸다.

아카데미아역 근처에 있던 포르투갈 국가관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앙 로투의 <I will be your mirror>는 모리스 블랑쇼, 구스타브 플로베르, 사무엘 베케트 등 문인들의 시와 문구를 작품으로 형상화한 전시였는데, 평소 이 공간이 일종의 공공 도서관이라는 사실이 신선했다. 다양한 시대에서 발췌한 문장들은 별 다른 장치 없이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고서들과 잘 어울렸다. 아이슬란드관은 어떻게든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하우스 앤 위스(Hauser & Wirth) 갤러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크리스토프 뷔셀은 산타마리아의 한 교회를 회교도 사원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 베니스 내 무슬림 커뮤니티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프로젝트는 실제 '무슬림 사회의 활동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예술작품은 이렇게 공적 영역이 되었다.

카스피 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국가관을 마련하면서 작지만 부유한 나라의 경제력 덕분이라는 비아냥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이들의 전통 미술은 물론, 비영리 예술단체인 YARAT의 존재를 알게 된 건 큰 성과였다. 이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와 베니스를 잇는 예술적 단서들을 모은 전시를 팔라초 바르바로에서 선보이는데, 궁전의 이미지를 심분 활용하여 컨템퍼러리 아트의 모던함을 각인시킨 꽤 완성도 높은 전시로 기억된다. 산마리노공화국, 몬테네그로, 모리셔스, 수다프리카, 키프로스 섬, 그루지야, 세이셸 제도, 안도라, 벨로루시 등 너무 낮은 나라로부터 온 예술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지형도를 펼쳐놓았다. 비록 비엔날레가 '각종 경매장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미술계 인사들에게는 5성급 호텔 수영장 같은 사교의 장이라 하더라도, 비엔날레가 미술 행사로서 권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름 모를 나라들의 예술가들 덕분이다.

베니스 시내를 걸어 다닌다는 건 티치아노, 티토레토 같은 이탈리아 미술 거장의 흔적을 발견한다는 것과 동의어다. 이런 곳에서 단색화를 만난다는 건 남다른 감회를 선사했다.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 흐름이자 성과로 평가 받는 단색화의 주체들, '단색화'라는 제 이름도 찾지 못한 채 묵묵히 작품에 몰두해왔던 이들이 공식적으로 세계에 존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벨기에 보고시안 재단이 주최하고 국제갤러리가 후원한 <단색화>전은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이우환 등 생존 작가들의 작품과 김환기, 정창섭, 권영우 등 현재 단색화를 존재하게 한 이들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표현의 자유가 사치였던 굴곡진 시대를 지나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건 예술가로서는 회화(미술)의 가능성을,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아니었을까, 르네상스 양식이 잘 보존된 팔라초 콘타리니-폴리냐를 정취 있고 격조 있게 채운 단색화의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우환 작가는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조용히 방과 방을 옮겨 다녔고, 박서보는 다소 상기된 행복한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내렸다. 몇몇 젊은 한국인 관객들이 그들에게 다가 사인을 요청했다. 곧 단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망라하는 서적을 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골목으로 빠져나왔다.

이때의 도시는 비엔날레이기에 가능한 놀라운 만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편 베니스이기에 가능한 예술의 순간도 존재한다. 내가 묵었던 산마르코 광장 근처의 호텔에서는 창을 통해 폰타 델라 도가나의 아침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나팔 소리에 맞춰 제복 입은 경찰들이 도열하곤 했는데, 내게도 베니스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세관 건물이었던 폰타 델라 도가나는 팔라초 그라시아와 함께 피노 컬렉션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안도 다다오의 정신이 투영되면서 더욱 명소가 됐다.



폰타 델라 도가나에 갔을 때 쾌재를 불렀던 건 안보가 작가이자 큐레이터로 활약한 전시 <Slip of the Tongue>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 자신의 작품을 포함해 피터 후자르, 데이비드 해몬스 등의 작품이 로댕, 브란쿠시 등 중세 작품과 병치를 이루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안보는 덴마크 국가관에서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불경스럽게도 유명한 그는 이번에 예수의 형상을 한 13세기 조각품 옆에 <엑소시스트> 속의 악마 들린 아이의 대사를 붙여놓았다. 물론 폰타 델라 도가나의 전시는 그만큼 뼈뺀 않았지만, 압도적인 공간에서 기죽지 않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질 수 있었던 건 그것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2006년 문을 연 팔라초 그라시아에서는 프랑스 신사실주의 화가 마르샬 레스의 회고전 규모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조각부터 회화, 설치에 이르기까지, 사회비판적인 내용부터 잡지 속 편집술에 대한 페티시까지, 과연 한 사람의 작품이 만나 싶어 경호원 스타일의 도슨트에게 몇 번이고 물어봤다. 1950년대 장 곡도와 함께 첫 전시를 열었던 1936년생의 작가는 베니스에서 불로장생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팔라초 그라시아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비엔날레에서 가장 신나는 사건이라 해도 좋을 '베네치안 블라인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프랑스 아트센터인 '르 콘서시움'의 디렉터이자 2013년 한국관 커미셔너로 김수자 작가와 협업한 김승덕의 초대였다. 몇 달 전 샤르자 비엔날레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죽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했는데 그 결과물인 '베네치안 블라인드'는 말하자면 '아티스트 런 밴드' 콘서트다. 에밀리 선드블러드, 로드니 그레이엄, 존 밀러, 그리고 터너상 수상자인 마틴 크리드 등 세계 미술계에서 활약 중인 아티스트들이 제각각 밴드를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이번 베니스에서의 사흘간의 공연을 시작 삼아, 앞으로 세계 곳곳의 예술 현장에 게릴라처럼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김승덕이 이렇게 말했다. "요즘에는 미술만 하는 걸 당연히 여기지만, 원래 아티스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문화적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에요. 우리는 재미있게, 의미있게 음악과 미술을 함께 보여줄 거예요." 무대는 정말이지 끝내줬다. 퍼포머이자 사진가이자 조각가인 장 뤽 베르나의 끈적하고 섹시한 목소리가 좌중을 흥분 상태로 몰아넣었고, 악동 마틴 크리드의 록 밴드 공연은 미술과 음악이 별거벗고 만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화끈하게 보여주었다. 베니스의 밤을 뒤집어 놓은 장 뤽 베르나는 이렇게 말했다. "1960년대에 태어났으니 난 25살이에요. 스틸레토 힐을 신고 마이크를 들 완 벽한 나이죠!" 이는 올해로 1백20살이 된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한 전언 같았다. 다행인 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B 에디터/윤희정



플레드뵈 보떼와 시계루반의 클라보레이션으로 완성된 빛과 소리의 파빌리온 'reverberation'은 베니스의 유서깊은 팔라쵸 피사니 음악원에 설치됐다. 베니스의 물과 빛에서 영감을 받은 이 조형물은 플레드뵈 보떼의 메이크업 케이스 9만개를 사용한 것



안보가 큐레이팅한 전시는 폰타 델라 도가나의 모던한 공간과 인상적인 조화를 이룬다